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4월 16일 (제894호)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잘 익어가는 과일...
 떠날 준비 화장할 때
 참! 아름다움 생각해 보았나?
 신부단장과 무엇이 다를까

떠날 때
 맛과 향기 남기고 사라지나
 서글퍼 우는 것 못 보았네
 발그레 수줍은 듯 좋아라 웃드라
 왜냐고 물으니
 이 땅에 씨앗을 남김이 좋아서란다
 나무로 다시 태어날 걸 알기에 서글퍼 울지 않는단다

우리네 인생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란다

떠날 시간 가까움 알면
 여보게! 단장하게나
 과일만도 못하면 되겠나

서글퍼 말게나
 다시 태어날 생각하며
 세상에 있을 때
 병든 과일 버림받듯 버림받지 말게나

흠도 점도 없이
 아름답고 향기롭게 익어가세나

예수 향기 남기며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며
 우리...

朋友

부활(復活)

봉 우 컬 럼

부활절의 의미

안중근, 유관순, 안창호... 순국선열들의 소원은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우리 민족이 잘 사는 것이었다. 민주화운동의 주역들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바랐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다. 부활절이 오면 세계 곳곳에서 부활절 행

사를 진행한다. 그 중에는 십자가의 고난에 직접 동참한다며 실제로 손과 발에 못을 박기도 하고, 유리병을 깨고 그 위를 걸기도 한다. 특히 필리핀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들은 온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거늘 왜 그분의 고통을 헛되게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잘 살라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라고, 죄의 멍에를 지지 말고 자유로워지라고 그러신 것 아닌가.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고생하면서 공부시켜 놔더니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호위호식하나’ 하면서 자식이 머리에 광주리 이고, 리어가 끌고 나간다면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는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더욱이 그 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을 얻게 되었으니 까무러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지경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길은 자학하는 행위가 아니라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이다. 그러라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영원한 세상까지도 가장 좋은 곳에서 행복하라고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이 넘치고, 영·혼·육에 부활이 있기를 바란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2:1~13)



기도는 현존하는 문제의 열쇠다

우리에게 최대의 복음(福音)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아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대의 축복이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은 내세의 축복만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고 채워준다는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실과 동떨어진 복음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지금 내가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삶이 엉망진창이고 고난 중에 있는데, 죽음 다음의 천국을 논한다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옥이 이보다 더하겠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복음(福音)에 대한 정의가 잘 적혀 있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눅4:18).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2/3 동안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무조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시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킨 후에 '현존하는 문제도 해결하신 하나님은 내세의 문제까지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이 말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하고 물을 때 예수께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마11:4~5) 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내가 너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보았듯이 죽음 다음의 문제도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본받아 해외집회에 나가면 먼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후에 천국소식을 전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해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간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는 현세의 복을 논하면 기복신앙이라느니, 복 복 하는 복사를 주의하라느니 하는데, 단언컨대 그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니까요. 또 예수님이 찰림을, 상함을, 그분이 징계 받음을, 채찍 맞음을 부인하는 거니까요. 갯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초는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뿐 아니라 현실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기 위한 아납니까?

그런데 이 현실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왜 현실의 문제 속에 빠져 있을까요? 왜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환난 중에 있을까요? 왜 오늘 이 역사, 이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고 계시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부족한 것이 많고, 지금 되는 꼴이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 아니까요.

시편 107편의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

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시107:10~11)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뜻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신다고 하시고(시107:14), 낚시를 깨뜨리시며 쇠 밧줄을 꺾으시며(시107:16), 위경에서 건지시고(시107:20), 광풍을 평정하사 사물결로 잔잔케 하시며(시107:29),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시107:35),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신다고 했습니다(시107:38). 현실의 암울한 것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부르짖으면요. 왜냐하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2~3)는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기 때문입니다. 무자했던 한나가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기도였습니다(삼상1).



총회장 이초석 목사

삼상1).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홍해에 가로막혔을 때, 먹고 마실 것이 없었을 때, 춥고 더울 때, 외침을 받았을 때 그가 한 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그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가 처한 현실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셨습니다. 또 에스더의 기도에도 풍전등화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셨고, 느헤미야의 기도에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예루살렘 성문을 재건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셨으며, 다니엘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자 굴에서 건지셨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단, 기도하는 자에 한해서입니다. 여러분

분, 예수님도 당신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땀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눅22:44). 그 분은 기도를 습관화하셨는데(눅22:39), 새벽기도로 하루를 여셨으며(막1:35), 저녁에 기도하셨고(막6:46), 철야기도도 하셨습니다(눅6:12), 산기도도 하셨습니다(마14:23).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열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 자는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막9:29).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구절이 무려 천여 번이나 나오고,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은 오직 기도뿐임(살전5:17)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혼자서 은밀히 할 때가 있고(마6:6),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렘33:3), 합심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마18:19). 또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으며(시126:5), 감사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빌4:6). 우리말로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방언기도할 때도 있습니다(고전

14:2). 여러분, 매일 기도로 살다보면 기도의 일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탈나지 않고 갈 수 있고(벧전4:7), 사는 동안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며(눅22:46), 삶에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병에 걸렸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교회 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찌니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5:14~16).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역시 기도하십시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 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대상4:10).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까? 기도만이 답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2:42~47). 국가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위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삼상7:5~10).

여러분, 기도는 생명선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고 한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의 독이 차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당신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계8:1~5). 그러면 만사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 그 자가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부활의 봄

겨우내 다 죽은 듯이 숨죽였던 나무들이 한껏 만개하고 있다. 목련꽃, 개나리, 진달래, 벚꽃까지 전 국토가 온통 봄빛이다.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는 계절에 우리는 중요한 국가적 결정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탄핵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으로 나라 전체가 뜨겁다. 오늘 바라는 바는 오직 하나다.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선출되어 침체된 정치경제 및 모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외적인 여러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하여 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통일의 길로 나가는 것 아니겠는가. 이는 지난겨울 광장을 달구었던 모든 국민들이 보수니 진보니 그 어떤 진영을 떠나서 진정 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바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우리 교단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셨다. 따라서 다가오는 대선 뿐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에 펼쳐질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의로운 국가, 법이 지배하는 국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 노력한 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한 개인이 미래를 꿈꾸며 계획할 수 있는 나라는 저절로 다가오지 않는다. 먼저 국가의 안보가 담보되어야 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식이 성장하여야 한다. 확고한 안보태세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정책도, 논의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 것이다. 먼저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위정자들이 정책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스스로 방위할 수 없는 국가는 독립 국가라 할 수 없다. 국제정세에 대한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주변 강대국을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방위력의 첨단화노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처럼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니다. 아직 일본의 선진 경제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싫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현실을 인정하고 대화하고 교류하며 협력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수출경쟁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주변 강대국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 그들을 적절히 활용도 하며 우리 앞의 술한 난제들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확한 현실진단이 중요한 것이다. 봄빛으로 물든 이 아름다운 나라를 자손 대대로 자유와 정의가 살아있는 훌륭한 국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은 참으로 중요하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냉철한 이성으로,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이다. 만물이 부활의 몸짓으로 아름다운 봄에, 부디 이 나라도 다시 한 번 성장과 번영의 활력으로 새롭게 부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 To Be Succeeded ::

스스로 구별하는 삶

저명한 모 잡지에 8인의 성공한 CEO가 매일 새벽마다 하는 일에 대해 소개된 적이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애플, 펍시코, 제너럴 일렉트릭과 같이 세계 정상을 달리는 기업 총수들의 공통점 중의 하나가 새벽 일찍 일어나 신문이나 책을 보고 운동한 후 아침 일찍 업무에 임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이른 첫 시간을 활용, 하루를 지배할 밑천을 마련하여 그날 하루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다. ‘저 사람은 뭘 하든 성공하는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은 한번 마음먹고 시작하면 마음과 시간, 물질 등을 철저히 구별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별한다는 것은 결단과 절제를 동반한다. 먼저는 목적을 향해 뜻을 정해야 하고 그 다음은 먹고 싶고, 쉬고 싶은, 어찌면 당연한 인간의 생리까지도 이겨내야 할 때가 많다. 그래야 목적인 바에 다다르거나 그 경지를 뛰어넘게 된다.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구별하는 시간과 행실을 통해 대업을 이루었다. 하루 세 번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지기까지도 요동치 않았더니 왕

과 온 국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믿음의 여인 에스더가 3일 금식을 결단하고 행하자 하나님은 풍전등화에 놓인 전 유다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다. 바울과 실라 역시 옥에 갇힌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리자 땅이 진동하고 매였던 창고가 풀리며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열 명의 자녀를 기르면서도 매일 한 시간여의 기도를 거르지 않았다고 한다.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렸기에 자신의 영성 유지는 물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삶을 교육시킬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존 웨슬리라는 걸출한 기독교 인물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앞두고 겔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특별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셨다. 신년 목적인 바를 재점검하여 내 마음과 시간, 스스로를 구별하는 하루하루를 지속한다면, 목적인 경지에 넉넉히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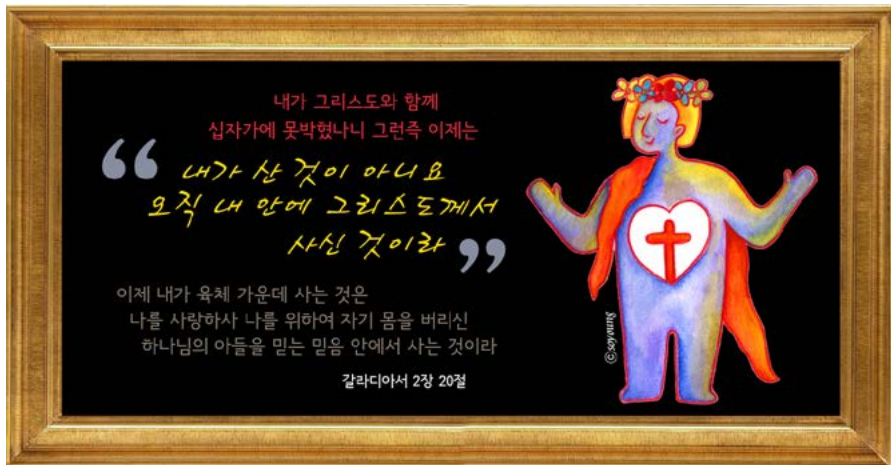
‘나는 못해’라는 독

내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여성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지금까지 연애를 해보지 못한 모태솔로이다. 옆에서 상담을 해주는 내가 봐도, 상대방도 분명히 마음이 있어서 다가가면 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러지 못한다. 갑자기 상대방의 이런저런 조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말이다. 내가 보았을 때는 ‘사귀었다가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만든 것 같았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그 친구의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을 안심시키거나 설득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제 안다. 그 친구가 무엇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 친구는 ‘나는 못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독을 품고 있다.

상상하면 현실이 되고 말을 뿌리면 그것은 이루어진다. 말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므로 생각을 고쳐야 말도 바뀌고 결국엔 결과도 달라진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계속 매달리다보면 현실에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오기 마련이다. 두려움은 우리가 악한 인간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이 아닐까. 두려움이 몰려들 때엔 두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 집중하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에 풍랑이 찾아온다. 좋은 것들은 자아로부터 오지 않는다. 일어나 열심히 기도하며 세상의 빛인 예수님께 의지하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마14:27).

김성일

cre8tor@naver.com



:: 생명의 말씀 ::

온전한 복음, 부활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며 인도를 위시한 불교국가에서 한동안 떠들썩했다. 그 석가모니의 뼈들은 잘 진열되어 수백 만 인도사람들이 경의를 표하는 가운데 시가행진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 부복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선교사가 그 친구에게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했다. 기독교는 그들처럼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예비해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을 찾을 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눅 24:5)라는 천사의 책망을 들었다. 만일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허위로 선전했다면 기독교가 2천 년 후인 오늘까지 존재할 수도 없고 부흥 성장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파스칼은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

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다면 예수의 부활은 붕괴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입증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온전한 복음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만이 복음은 아니다. 죽으신 것은 반쪽에 불과하다. 한 청년이 “목사님, 저는 예수의 죽음은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안 믿어져요.”란다. 상식적으로는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만 믿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롬 10:9)라고 기록되어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자신의 존재도 없을 거라고 외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롬8:24).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름답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체장암이 나왔습니다



조아라 성도 부부(기도원에서)

저는 55세로 전남 나주에 사는 조임숙입니다. 그런데 이번 춘계산상집회를 통해 ‘조아라’ 성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1남 6녀의 다복한 부자집의 둘째 딸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몰랐습니다. 늘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동생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교회나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 욱도 하던 사람입니다. 다섯째 동생인 조임심 집사는 목포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중2때 시온산 기도원집회에서 이초석 목사님의 안수로 성령을 받았다고 이번에 고백하더라고요. 다섯째 동생의 기도가 지금 저의 진정 가족 구원의 모퉁이 주춧돌이 되었음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어느 날부터가 배와 등을 비롯 여러 곳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처음에 체장염이라고 해서 가볍게 치료받고 퇴원을 했으나 계속 소화도 안 되고 구토하는 등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려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두려웠습니다.

그 때 광주예수중심교회에 나가고 있는 동생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두렵고 많이 무서웠나 봅니다. 동생에게 “나 좀 살려줘.” 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네.” 하더군요. 동생은 금요일에 참석차 교회에 가는 길이었는데 예배 후 목사님께 제 얘기를 했나봅니다. 목사님은 늦은 시간인데도 병원 심방을 와주셨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고 무조건 믿어야 산다는 맘뿐이었습니다. 그날 우상숭배하던 제가 목사님 따라서 신앙고백도 하고 영접기도와 물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 날 지난날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제 구원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두려움은 다소 해소되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안했습니다. 첫 입원 14일, 두 번째 15일 동안 병원에 있었지만 아픔과 고통은 점점 더했습니다. 결과를 의사선생님께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신 이후 동생이 교회에 가고 했습니다. 저는 살고 싶어서, 아프고 싶지 않아서 예배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수요일에 때 교회라는 곳에 처음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지푸라기는 교회다’ 라고 생각하고 결심했습니다. 마침 장성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다는 동생의 말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춘계산

상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체장암이라는 선고를 받았고, 체장암은 발견되면 이미 늦은 거라고 들었기에 저는 간절히 무언가를 붙잡아야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집회를 하루 앞두고 지쳐 누워 잠이 들었는데, 꿈에 시커먼 옷을 입고 검정 모자를 쓰고 나타난 한 남자가 제 발목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부림치고 소리를 지르고 했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깨보니 꿈이었습니다. 기도원 집회가 27일부터 시작되었는데 동생은 저에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며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 후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이초석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 치료받고 싶고 살고 싶었습니다. 28일 오후에 이초석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제 남편을 보시며 “자네는 홀애비 될 팔자가 아니구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때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6시 넘어서부터 자리를 잡고 기도와 금식으로 예배준비를 했습니다. 예배에 앞선 기도시간에 저는 남편과 손을 꼭 잡고 살려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예배가 시작되고 이초석 목사님은 우리 부부를 보시며 “살려고 제일 앞에 앉았구먼.”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성기도를 시키셨는데, 목사님께서 내려오셔서 안수를 하시며 귀신을 쫓아냈

습니다. 저도 안수 받는 동시에 귀신이 떠나며 새 방언을 받았습니다. 머리와 두어깨가 아프고 무거웠던 것이 가벼워지고 마음과 몸이 기뻐했습니다. 힘이 빠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현상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기도원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교회 가는 일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를 통해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친정엄마와 남편과 아들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꼭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어 기도원으로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초석 목사님은 저희들을 마치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정문에 서계셨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맛있는 저녁식사를 한 후에 즐거운 다과 시간도 가졌습니다. 노래 한 곡 해보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노래도 한곡 불렀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랑스럽게 봐주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요즘 밤에는 가정예배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초석 목사님의 방언기도와 찬양이 찜찜 찜찜 울립니다. 병원생활 동안에는 죽도 전혀 못 넘겼고 물만 조금씩 마셨는데, 마지막 집회 식사 때에는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식사도 과일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광주교회 성도 조아라**

Good News

미국의 경영학자이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은 전 세계 70개국에서 발간되어 2,500만부 이상 팔렸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도에 초판이 발간되어 지금까지 130만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권의 자기계발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에 대한 영감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 기자가 찾아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가 짧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책에 쓴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생사화복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

게 하면 영생을 얻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다스리고 누리며 살아가다가 죽은 뒤에 도 천국에 올라가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스티븐 코비의 말이 생각납니다. 예수를 믿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성경에서 배운다 ::

왕을 태운 나귀

해마다 4월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릴 위해 받으신 고통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부활주일을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를 되새김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중 종려주일을 묵상하다 보면 의외의 동물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태웠던 어린 나귀이다. 당시 어린 나귀는 메시아, 즉 왕이신 예수님께 어울리는 동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눅9:9)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아무 짐도 메어본 적이 없는 순결한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준다. 나귀는 평생 멍에를 메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숙명을 타고났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죄와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단의 세력아래 신음하며 사는 것과 닮았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러한 죄의 멍에를 벗기러 오셨고 이제는 온전히 예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나설 순결한 나귀를 원하신다. 더불어 아무리 약하고 어린 나귀여도 내가 태운 분이 왕이라면 나도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기도 하

다. 화려하고 근사한 말이 아니면 어떠한가? 여리고 작아도 순전한 마음으로 왕을 모신다면 왕의 나귀, 즉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나약해도 상관없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을 모신 특별한 존재이기에 가난에서 해방되고 병에서 자유를 얻고 나약함이 강함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특권을 가진 것이다. 또한 그렇기에 새끼 나귀는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군중들의 함성을 결코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세상의 환호’를 자신의 것인 양 자만에 빠지곤 한다. 하지만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배우라’던 예

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모신 왕을 향한 함성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옆에서 지르는 환호성이나 박수에 눈과 마음을 빼가지 않아야 내가 모신 예수님의 목적지를 흔들림 없이 바라볼 수 있고 묵묵히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4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자문해보자. 우리가 모신 분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영광을 짊어진 어린 나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막11:9). **하인명**
renming@daum.net